

뻥뻥 물놀이 그만!... FUN한 바다의 매력에 '퐁당'

해수부 다채로운 바다행사 소개
전국 각지서 해양레저행사 열려
다양한 즐길거리·볼거리 '퐁당'
무료입장·चे험비 할인 등 혜택

폭염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8월 '국제 해양레저워크',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관상어 산업 박람회' 등 바다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연이어 개최된다. 해수수산부는 8월 휴가철을 맞아 시원하게 바다를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소개했다.

◆**부산과 포항에서 즐기는 해양레저워크**
이달 10일부터 부산 송도해수욕장과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일원에서는 국내 최대 해양레저 축제인 '2018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워크(KIMA)'가 열린다.

KIMA는 단순 해양스포츠대회나 체험행사를 넘어 '아시아의 킬위크(Kiel Week)' 행사로 만든다는 목표 하에 2013년 첫 발을 내딛었다. 이 행사는 그



제13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제4회 한국관상어산업박람회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워크

동안 부산에서만 개최됐지만 올해는 지진 피해로 인해 침체된 포항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포항에서도 동시에 개최된다.

축제 개막식에서는 다양한 문화 공연과 함께 요트 위에서 즐기는 각종 공연, 대중가수의 오픈 콘서트 등이 준비된 '바다야 놀자 요트만보기: 요스킹' 이벤트가 열릴 예정이다.

보다 많은 국민이 해양레저를 체험할 수 있도록 복지원 어린이와 다문화 가정

을 대상으로 지역 복지기관과 협력해 무료 요트승선권을 제공한다. 또한, 스낵 스쿠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행사기간 중 수중레저를 체험하는 관광객에게 체험비의 50%를 할인해 줄 예정이다.

◆**속초 해수욕장서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8월 16일부터 4일간 강원도 속초해수욕장과 청호동 해변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해양스포츠대회인 '제13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이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선수와 임원, 동호인 등 1만명이

참여해 요트, 카누, 철인3종 등 8개 종목에 410개의 금·은·동메달을 놓고 기량을 겨룬다.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은 해양레저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06년 경북 울진에서 처음 개최됐으며 13회째를 맞은 올해에는 해양레저스포츠 경기와 함께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볼거리·즐길거리를 준비했다.

17일 오후 7시 속초해수욕장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개회식에서는 다비치·키썸·장민호·서지오·진성 등 유명가수의 공연을 즐길 수 있다. 또한 바나나보트, 모터보트, 수상징검다리 등 20개 체험종목과 바다염서 그리기, 페이스페인팅 등 일반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준비돼 있다.

◆**일산 킨텍스 관상어산업박람회**
이달 17일부터 19일까지 일산 킨텍스(KINTEX) 제1전시관에서는 국내 관상어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한 '제4회 한국관상어산업박람회 및 품평회'가 열린다.

4회째를 맞은 올해 박람회는 '관상어, 새로운 세계를 향한 발걸음'이라는 주제로 열리며, 54개 업체와 60여 명의 해외 바이어가 참가할 예정이다. 박람회에서는 구피, 비단잉어, 관상새우 등 관상생물, 사료·약품, 수조·용품 전시와 함께 수조 디스플레이 등 800여 개의 출품작을 통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관상어 쉽게 기르기 강의, 금붕어잡기, 소형수조 추천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박람회 공식 누리집(www.kafaco.net)에서 관람 사전등록을 할 경우 무료입장이 가능하며 관람객에게는 전시된 관상어와 제품들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사진/픽스타

“휴가때 업무연락 싫어”... 방해꾼 1위 동료

휴가 안간다는 '꼰대' 2위

휴가철 최악의 방해꾼 1위로 '업무연락을 계속하는 동료'가 꼽혔다. 8일 인크루트와 알비콜이 공동으로 직장인 52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20일~27일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5%는 "휴가를 방해하는 꼰대 동료"가 있다고 응답했다.

여름휴가 최악의 방해꾼으로는 '업무연락을 계속하는 동료', 즉 휴가스틸러(35%)였다. 이외에도 '본인은 바빠서 휴가 못가지만 너희는 가라며 빈정거리는 꼰대맨'(18%), '휴가 후 많은 업무가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휴가 저승사자'(18%), '휴가 후 일더미 폭탄을 투하하는 일강제'(14%), '기념품을 부탁하거나 대놓고 언급하는 선물 테러리스트'(12%) 등의 꼰대꼰대 유형들이 이어졌다.

이러한 휴가 방해를 뿌리치고 휴가를 가기 위해서일까. 직장인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은 '원만한 휴가 사용을 위해 거짓말을 해봤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은 대부분 '여행 일정을 이미 잡아놨서 바꾸기 어려워요'(31%), '가족여행 가요'(19%), '집에 일이 생겼어요'(18%)와 같은 거짓말이었다.

직장인 중 올해 휴가 계획이 있는 경우는 64%, 이미 휴가를 다녀온 경우는 5%, 현재 휴가중인 경우는 1%로 휴가를 가는 경우는 총 70%였다. 반면에 휴가를 가지 않는 경우는 30%로 직장인 10명 중 3명 꼴로 올해 여름 휴가를 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휴가를 가지 못하는 이유로는 '동료 직원들(상사)눈치'(23%)가 가장 많이 꼽혔다. 그 뒤로는 '부족한 휴가비'(18%), '부족한 휴가일수'(16%), '타인과 휴가일정 조율'(12%), '과도한 업무량'(11%)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한용 기자 hys@

서울아산병원, 생체간이식 '5000건' 돌파

단일 의료기관 중 '세계 최초' '2대1 생체간이식'도 500건

서울아산병원은 생체간이식 수술 5000건을 달성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994년 국내 최초로 시행한 이후 24년 만이다.

간이식은 보통 뇌사자 간이식과 생체간이식으로 나뉜다. 과거에는 뇌사자한테 기증받은 간을 이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생체간이식이 대부분이다.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지금까지 이뤄진 전체 간이식 6023건 중 생체간이식이 83.2%에 달한다.

이승규 서울아산병원 간이식·간담도외과 교수는 "생체간이식 5000건은 단일 의료기관으로는 세계 최초의 성과"라며 "말기 간질환을 앓고 있는 절체절명의 중증환자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이런 대기록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아산병원에서 2000년 3월 세



이승규 서울아산병원 교수(오른쪽)가 해외 의료진에게 생체간이식 수술법을 전수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계 최초로 성공한 '2대1 생체간이식' 수술 500례를 달성했다. 2대1 생체간이식은 이승규 교수가 개발해 서울아산병원이 주로 시행하는 고난도 수술법이다. 기증자 조건에 맞지 않아 생체간이식 수술이 불가능했던 말기 간질환 환자들에게 기증자 2명의 간 일부를 각각 기증받아 한 명의 수혜자에게 동시에 이식하는 수술 방법이다.

세계 2대1 생체간이식 수술의 95% 이상이 서울아산병원에서 이뤄지고 있어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러시아 등 해외 환자들이 꾸준히 찾고 있다. 미국, 독일,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중국, 홍콩 등 최근 3년간 서울아산병원 간이식팀을 찾은 해외의학자 수만 1500여명에 달한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해수부 천연기념물 259호 어름치 금강에 방류

해수수산부와 국립수산물과학원은 천연기념물인 어름치(사진)의 서식환경과 생태 특성 등을 밝히기 위해 8일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금강에 표지표를 붙인 어름치 100마리를 방류했다.

어름치는 한반도의 토종 어류로 한강·금강에서 주로 서식했지만 수질오염 등으로 점차 발견하기가 힘들어져 1978년부터 천연기념물 제259호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국립수산물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는 어름치 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2001년 어름치를 인공으로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2008년에는 인공 생산된 어린 어름치(4~6cm) 5000마리를 금강수계인 전북 무주군 지역에 방류했으며 1년 후인 2009



년에 산란탕 30여 개를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번 방류는 2012년에 인공으로 생산된 어름치 100마리에 표지표를 부착해 실시하며, 해당 지역은 깨끗한 수질에 자갈지대가 펼쳐져 있고 먹잇감도 풍부해 최적의 복원지로 평가됐다.

국립수산물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는 방류 이후 어름치 서식상황과 서식환경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계획이다. 또한, 어업인 신고 등으로 확보한 어름치의 생태정보는 향후 대량 방류 및 복원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모레부터 14일까지 해수면 가장 높아진다

침수피해 주의... 현장조사 실시

국립해양조사원은 11일부터 14일까지 8월 대조기에 해수면이 올해 중 가장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해안저지대 침수 피해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침수 예상지역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해수면이 높아지는 이유로는 여름철 고수온, 저기압 등 기상학적 요인과, 달과 지구 간의 인력 증가 등 천문학적 요인이 있다. 이번 8월 대조기에는 여름철 무더위로 부피가 팽창한 바닷물에 그림의 영향이 더해져 해수면이 올해 중 가장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12일에는 남해안(완도, 마산 등)과 제주지역에서, 13일에는 서해안 지역(인천, 군산, 목포 등)에서 해수면이 가장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인천, 목포, 마산(창원) 등 일부지역은 지난 '슈퍼문' 대조기에 이어 침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인천 지역의 해수면은 최대 979cm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그간 지자체를 통해 침수사태가 접수됐던 7개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한편, 실시간 고조정보서비스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www.khoa.go.kr/hightid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최신용 기자

국내외 블루스 뮤지션 20팀 10월 플랫폼 창동61에 뜬다

신촌블루스, 블루스파워, 노만잭슨밴드 등 국내외 정상급 블루스 뮤지션 20팀이 플랫폼창동61에 뜬다.

서울시는 10월 13~14일 도봉구 플랫폼창동61에서 '2018 서울 블루스 페스티벌'을 연다고 8일 밝혔다.

축제는 한국블루스 전설로 불리는 이정선과 엄인호가 재결합한 신촌블루스의 공연과 블루스계의 어벤저스로 불리는 블루스파워(한상원, 신대철, 찰리정)의 무대가 마련돼 있다.

공연 티켓은 인터파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1일권은 5만5000원, 양일간은 8만8000원이다. /김현경 기자 hik1@